

개인자아존중감과 집단지위가 집단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김지경 · 박수애 · 이훈구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개인자아존중감과 집단의 지위가 여러 가지 집단자아존중감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가, 그리고 구체적인 집단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을 일반적인 수준의 집단자아존중감이 종합적으로 대표하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집단의 지위가 다르다고 인정되는 두 대학의 학생들에게 개인자아존중감과 집단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다. 집단자아존중감은 일반적인 집단, 대학, 성,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소집단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을 각각 측정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 보면 구체적인 집단들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과 일반적인 집단자아존중감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개인자아존중감과 집단자아존중감간을 측정하는 여러 척도들간에도 집단의 지위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집단지위는 집단자아존중감의 구체적 하위요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 공격 집단자아존중감변인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개인자아존중감과 집단지위변인을 독립변인화하고 집단자아존중감을 종속변인화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집단자아존중감에 있어 개인자아존중감이 집단지위변인보다 더 중요한 설명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개인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또한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의 지위가 높을수록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이 높으며 자신이 속해있는 여러 범주들에 대해 일관되게 높은 자부심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은 누구나 독특한 개성을 지닌 개인으로서 살아가지만 때로 여러 집단 구성원 가운데 한사람으로 살아가기도 한다. 우리들이 속하게 되는 범주는 다양한데 크게는 국가, 인종에서부터 성, 학교, 취미, 씨름, 가족, 친구집단 등이 있다. 우리가 항상 이러한 범주들을 염두에 두고 생활하거나 이 모든 범주들이 다 우리에게 동일한 정도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우리는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한 성원으로서 행동하며 집단의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내재화하기도 한다. 또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더 좋고 내집단의 성원들이 더 좋은 자질을 갖고 있으며 내집단 성원들의 활동 결과를 더 나은 것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내집단 편파(ingroup bias)가 나타나는 원인을 사회정체감 이론에서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정체감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는 대전제에서 출발한다(Tajfel과 Turner, 1986). 이러한 정체감은 개인적 수준의 정체감과 사회적 수준의 정체감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적 정체감이란 개인의 성격, 신체적, 지적 특성으로 구성되며 사회적 정체감이란 인종, 국가, 성, 계층과 같은 사회적 범주의

견지에서 자신을 정의하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할 때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과 타 집단과의 비교가 특출해지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집단을 타집단과 비교하는 집단간 비교를 통해 자신의 정체감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려 하는 것이다(Tajfel, 1982).

1) 개인자아존중감과 집단자아존중감

Crocker와 Luhtanen(1990)은 사회정체감이론에서 정체감을 개인적 정체감과 사회적 정체감으로 나누어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자아존중감 역시 개인자아존중감(personal self-esteem)과 집단자아존중감(collective self-esteem)이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개인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가치있게 여기고 인정하고 좋아하는 정도로써 자신의 가치나 값 또는 중요성에 대한 전체적인 감정적인 평가이다. 마찬가지로 집단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가치나 중요성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개인자아존중감이 개인적인 정보를 처리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집단간 비교와 평가를 할 때는 집단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집단간에 생겨나는 편파와 차별을 예언하는 변인으로서 집단자아존중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개인자아존중감과 마찬가지로 집단자아존중감 역시 비교적 안정적이며 전반적인 수준에서 존재한다고 보고 이것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집단자아존중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한 개인이 사회집단의 소속 성원으로서 얼마나 만족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가 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집단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지각 및 그러한 집단에 소속되는 것이 자신의 정체감 형성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다음의 네 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된다. 첫째, 멤버십 집단자아존중 하위척도는 개인이 집단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가, 혹은 그 집단에서 얼마나 가치로운 성원이라고 느끼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사적 집단자아존중 하위척도는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며 자랑스럽게 느끼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공적 집단자아존중 하위척도는 다른 사

람들이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본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다. 마지막 정체적 집단자아존중 하위척도는 사회집단들의 성원이 되는 것이 자신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가를 측정한다.

2) 개인자아존중감과 집단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여기서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개인자아존중감과 집단자아존중감간의 관계이다. 이 두 가지 변인들간의 관계를 살펴본 기존 연구의 결과는 개인자아존중감과 집단자아존중감이 서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김혜숙(1994)의 연구에서는 개인자아존중감과 집단자아존중감이 상당한 정도의 상관관계(.4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uhtanen과 Crocker(1992)의 연구에서도 이들 두 변인간의 상관관계는 .34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련성은 집단자아존중감의 출발점이 개인자아존중감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본적으로 개인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지는 많은 상황과 정보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평가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자신을 설명할 때 더 긍정적인 속성을 부여하며(Marsh, 1986; Pelhamrhk Swann, 1989) 또한 이러한 자기의 생각을 확신하며(Baumgardner, 1990; Campbell, 1990) 미래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Brockner, 1983).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이 긍정적이며 부정적인 속성을 모두 갖고 있으며 그러한 자신의 생각에 확신이 없고 미래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별로 하지 않는다.

개인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이러한 동기적 지향성과 자기와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의 차이들은 집단 상황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보다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에 대하여 더 강한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앞서 언급한 이전의 연구들에서 나타난 개인자아존중감과 집단자아존중감간의

정적인 상관계수도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해 준다.

3) 집단의 지위와 집단자아존중감간의 관계

개인이 집단에 대해 갖게되는 집단자아존중감의 문제를 논할 때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은 집단의 지위이다. 사회적으로 어떤 집단의 지위가 높다는 것은 어느 정도 상대적이긴 하지만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높은 자질을 갖고 있다거나 권위 혹은 권력, 자원을 지니고 있다고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개인이 속해있는 집단의 지위가 높다는 것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감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집단의 지위가 높으면 집단의 지위가 낮을 때보다 그 집단의 구성원들은 더 만족감을 느끼고 집단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다. Ellemers, van Knippenberg, de Vries와 Wilkes(1988)가 실험실 상황에서 집단의 지위를 조작한 연구에서도 이러한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자아존중감, 집단의 지위가 집단자아존중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일반적 집단자아존중 척도가 구체적인 집단에 대한 집단자아존중척도들을 종합적으로 대표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학력평가점수에서 차이가 나고 일반인들이 명문대와 비명문대로 평가하여 상대적으로 지위가 다르다고 가정되는 두 대학(서울 시내소재의 Y대학교와 G대학)을 선정하여 개인자아존중감과 집단자아존중감을 조사하였다. 집단자아존중감은 일반적인 집단자아존중감과 대학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 성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 그리고 소집단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다.

이처럼 여러 집단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을 측정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Crocker 등이 주장한 대로 정말로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집단자아존중감이 존재하는지 또 그것이 여러 집단에 대한 자부심을 종합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만일

구체적인 집단에 대한 자부심을 측정하는 척도(대학에 대한 자부심 측정치, 성에 대한 자부심 측정치, 자신이 활동하는 소집단에 대한 자부심의 측정치)들과 일반적인 집단자아존중감 측정 척도간에 상관정도가 일관성있게 높게 나타난다면 개인자아존중감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이고 안정적인 집단자아존중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집단지위가 달라짐에 따라 해당 집단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대학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에서만 차이가 나타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집단자아존중감이나 그의 다른 집단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집단자아존중척도의 하위요인별로도 분석을 실시하여 집단의 지위와 개인자아존중감이 구체적으로 어떤 하위요인들에 영향을 주는 지도 밝혀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조사대상자

Y대학교와 G대학교에서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은 총 294명으로, 이중 Y대학교 재학생은 151명(남자 85명, 여자 66명)이고 G대학교 재학생은 142명(남자 110명, 여자 32명)이었다.

도구

1. 개인 자아존중 척도

Rosenberg(1965)의 개인자아존중 척도를 사용하였다. 모두 10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아니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 4점 척도 상에 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10문항에 대한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개인이 자신에 대하여 느끼는 자아존중감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2. 집단 자아존중 척도

김혜숙(1994)의 한국 집단자아존중 척도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집단자아존중 정도와 자신이 속하는 대학, 성, 그리고 소규모 집단의 각각에 대하여 느끼는

집단자아존중 정도를 측정하였다. 7점 척도 상에 각 문항에 자신이 얼마나 그렇다고 생각하는지의 정도를 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느끼는 집단자아존중감이 큰 것을 의미한다. 각 척도에서 집단이름을 바꾸어 주고 각 집단에 대한 자아존중 정도를 측정하였다. 예를들어 일반적인 집단자아존중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에서는 “나는 내가 속한 사회집단에서 가치로운 구성원이다”라는 형태로 질문문항을 구성하였고, 대학에 대한 집단자아존중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에서는 “나는 내가 속한 Y대학에서 가치로운 구성원이다”라는 형태로 소속하는 집단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주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집단자아존중 척도 다음에 구체적인 집단을 생각하고 응답을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집단을 생각했다면 어떤 집단이었는지를 자유롭게 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3. 기타

실제로 자신이 느끼는 집단자아존중감이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을 위한 행동의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만일 학교 발전을 위해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당신은 시간을 할애하여 주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4개의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고르도록 하였다. 선택지 중 1번은 “전혀 할 의사가 없다”, 2번은 “한달에 한 시간 정도 봉사하겠다”, 3번은 “2주일에 한시간 정도 봉사하겠다”, 4번은 “1주일에 한 시간정도 봉사하겠다”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여러 사회적 범주들 가운데 당신에게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국가, 출신지, 남성/여성, 대학, 고등학교, 동아리/소규모 모임, 없다, 기타 중 하나를 고르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1. 여러 가지 집단자아존중 척도들 간의 상관관계
일반적인 집단자아존중점수가 구체적인 집단들에 대한 집단자아존중점수를 대표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대학별로 일반 집단자아존중 점수와 대

학, 성, 소규모집단에 대한 집단자아존중 점수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두 대학별로 분석한 각 집단자아존중 점수간의 상관계수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두 대학의 자료를 합하여 각 집단자아존중 점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의 결과를 살펴보면 각 집단에 대한 집단자아존중 점수들의 상관계수가 .415부터 .625까지로 나타나 여러 가지 집단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들이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집단자아존중감 척도들 간의 상관관계

	대학	성	소규모 집단
일반적 집단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	.625***	.415***	.623***
대학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		.461***	.549***
성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			.467***

*** $p < .001$

2. 개인자아존중감과 집단 지위가 여러가지 집단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먼저 개인자아존중감과 집단지위간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지위가 높다고 가정되는 Y대학을 2점, 상대적으로 집단지위가 낮다고 가정되는 G대학은 1점의 점수를 부여하여 두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결과, 개인자아존중감과 집단지위간의 상관관계는 전혀 유의하지 않았다 ($r = .036$).

다음으로 개인자아존중감과 집단지위가 여러 종류의 집단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2에 제시되어 있는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자아존중감은 본 연구에서 조사한 4가지 집단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각 집단자아존중감의 하위척도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성집단에 대한 정체적 자아존중감을 제외한 모든 하위척도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성집단에 대한 정체적 자아존중감과 개인자아존중감간의 상관계수의 유의도 수준도 $p = .062$ 로 두 변인간의 상관

이 상당히 높았다.

반면에 집단지위와 각 집단의 집단자아존중감간의 상관관계는 집단자아존중감을 측정한 대상집단에 따라 달랐다. 대학집단의 지위는 일반적인 집단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 중에서 공격 집단자아존중감과만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대학집단의 지위가 높을수록 일반적인 집단에 대한 공격 집단자아존중감은 높았다. 특이한 결과는 성집단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과 대학 집단의 집단지위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성집단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의 총점이 대학집단 지위와 부적인 상관관계가 유의하였으며 하위척도들 중에서도 사적인 집단자아존중감과 공격적인 집단자아존중감이 대학집단지위와 부적인 상관이 유의하였다. 즉, 대학의 집단지위가 높을수록 자신의 성 집단에 대하여 느끼는 집단자아존중감이 낮았다. 특히 대학의 집단지위가 높으면 사적인 집단자아존중감과 공격적인 집단자아존중감이 낮아졌다. 그 중에서도 공격적인 집단자아존중감과 대학의 집단지위와의 역상관관계는 상당히 컸다.

표 2. 개인자아존중감, 집단지위와 여러 가지 집단자아존중감간의 상관관계

집단자아존중감	대학	개인자아존중감	집단지위
일반적 집단자아존중감		.521***	.067
멤버십 집단자아존중감		.531***	-.106
사적 집단자아존중감		.380***	.037
공격 집단자아존중감		.341***	.212***
정체적 집단자아존중감		.260***	.121*
대학 집단자아존중감		.438***	.351***
멤버십 집단자아존중감		.407***	-.065
사적 집단자아존중감		.347***	.337***
공격 집단자아존중감		.327***	.536***
정체적 집단자아존중감		.191**	.325***
성 집단자아존중감		.405***	-.119*
멤버십 집단자아존중감		.491***	-.010
사적 집단자아존중감		.293***	-.180**
공격 집단자아존중감		.176**	-.235***
정체적 집단자아존중감		.109	.131*
소집단 집단자아존중감		.432***	-.021
멤버십 집단자아존중감		.441***	-.042
사적 집단자아존중감		.375***	-.040
공격 집단자아존중감		.346***	-.024
정체적 집단자아존중감		.178**	.051

* $p < .05$, ** $p < .01$, *** $p < .001$

성집단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이 대학에 따라 다르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다. 따라서 대학에 따라 성집단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이 다른 원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여 보기 위하여 남성과 여성별로 성집단자아존중감이 대학간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여 보았다. 각 대학별로 설문에 응답한 남성과 여성의 응답자 비율이 달라 먼저 대학별 남성 집단과 여성집단에 대하여 동변량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가 유의하지 않아 각 집단이 같은 변량을 갖고 있는 집단이라는 가정 하에 성집단의 집단자아존중감 하위요인들에 대하여 남성과 여성집단별로 대학간 차이를 비교하여 보았다.

Y대 여학생들은 G대 여학생들에 비하여 공격 집단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낮았으며(10.18(3.02) 대 12.64(3.09), $t(1,95) = -3.711$, $p < .01$), Y대 남학생들은 G대 남학생들보다 사적 집단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낮았다(20.41(3.24) 대 21.56(3.51), $t(1,192) = -2.325$, $p < .05$). 더욱이 대학을 합쳐 성 집단자아존중감의 하위척도상의 남성과 여성 응답자간 차이를 분석해본 결과,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하여 더 높은 사적인 집단자아존중감(21.06(3.44) 대 17.85(3.84), $t(1,289) = 7.213$, $p < .001$)과 공격적인 집단자아존중감(16.10(2.37) 대 10.36(3.24), $t(1,289) = 15.325$, $p < .001$)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소집단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은 대학이라는 집단지위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집단지위 변인이 대학집단에 관한 것인만큼 대학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은 대학의 집단지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이한 점은 모든 집단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 중에서 멤버십 집단자아존중감 하위척도와 대학의 집단지위 변인간의 관련성이 일관성있게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위와 같이 대학이라는 집단지위와 여러 가지 집단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본 결과는 자신이 속해 있는 특정한 집단의 지위가 일반적인 집단자아존중감 중 일부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줌을 시사한다. 이런 경향성은 일반적 집단자아존중감을 측정한 후 어떤 집단을 생각하고 응답했는지를 질

문한 문항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로도 지지된다.

일반적인 집단자아존중감을 측정할 때 어떤 집단을 생각하고 응답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인 집단자아존중감을 측정할 때 어떤 구체적인 집단을 생각하고 응답을 했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70.8%이었고 나머지 피험자들은 구체적인 집단을 생각하지 않고 응답을 했다고 하였다. 각 대학 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을 생각하고 응답을 했는지를 분석해본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집단이 학교였다. 표 2를 보면 대학 별로 일반적인 집단자아존중감을 측정할 때 고려한 집단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집단의 지위가 높다고 가졌던 Y대학의 학생들이 자신이 속하는 대학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인 집단자아존중감 척도에 응답하였다고 한 빈도가 집단의 지위가 낮다고 가졌던 G대학의 학생들보다 더 많았다. 반면에 G대학의 학생들 중에는 Y대의 학생들에 비하여 학과를 생각하면서 응답하였다고 보고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Pearson $\chi^2=19.579, p<.001$).

표 3. 대학별 일반적 집단자아존중감 측정 시 고려했다고 응답한 집단들의 비율

	Y대학교	G대학교	합계
학 교	63(58.9%)	36(35.3%)	99(47.4%)
동아리	14(3.1%)	13(12.7%)	27(12.9%)
친 구	8(7.5%)	4(3.9%)	12(5.7%)
학 과	9(8.4%)	24(23.5%)	33(15.8%)
교 회	5(4.7%)	11(10.8%)	16(7.7%)
국 가	6(5.6%)	9(8.8%)	15(7.2%)
기 타	2(1.9%)	5(4.9%)	7(3.3%)

표 4. 대학별 자신에게 중요한 집단이라고 응답한 비율

	Y대학교	G대학교	합계
국가	13(8.6%)	20(14.2%)	33(11.3%)
출신지	4(2.6%)	8(5.7%)	12(4.1%)
남성/여성	7(4.6%)	12(8.5%)	19(6.5%)
대학	51(33.8%)	24(17.0%)	75(25.7%)
고등학교	6(4.0%)	7(5.0%)	13(4.5%)
동아리/소규모 모임	23(15.2%)	27(19.1%)	50(17.1%)
없다	23(15.2%)	15(10.6%)	38(13.0%)
기타	24(15.9%)	28(19.9%)	52(17.8%)

마찬가지로 설문문의 제일 마지막에 수록된 “자신에게 가장 의미있고 중요한 사회적 범주가 무엇인가”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Y대생과 G대생들은 다른 응답양상을 보였다(표 4).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제일 의미있고 중요한 사회적 범주가 대학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빈도가 G대학(17%)보다 Y대학(51%)에서 더 많았으며 빈도분석 결과도 유의하였다(Pearson $\chi^2=15.919, p<.05$).

이처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지위가 높을 때 그 집단을 자신에게 중요한 집단이라고 평가한다는 결과는 “실제로 학교에 어느 정도 봉사활동을 하겠는가”를 물어본 문항에 대하여 응답자들이 응답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와 대비된다(표 5 참조). 자신이 속하는 집단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 특히 대학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Y대생이 G대생보다 더 적은 시간을 할애하여 학교에 도움을 주는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응답하였다(Pearson $\chi^2=11.396, p<.05$).

표 5. 대학별 봉사 할애 시간 응답비율

	Y대학교	G대학교	합계
할 의사없음	15(10.0%)	19(13.3%)	34(11.6%)
한달에 한시간	68(45.3%)	39(27.3%)	107(36.5%)
2주일에 한시간	37(24.7%)	40(28.0%)	77(26.3%)
1주일에 한시간	30(20.0%)	45(30.5%)	75(25.6%)

2. 개인자아존중감과 집단지위가 집단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개인자아존중감과 집단지위가 여러 가지 집단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과 각 집단자아존중감의 하위척도와 어떤 관련성이 있음을 앞서 상관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개인자아존중감과 집단지위가 각 집단자아존중감의 수준을 어느 정도에 연하여 주는 지를 알아보았다. 개인자아존중감과 집단지위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각 집단자아존중감의 총점과 각 척도의 하위점수를 종속변인으로 삼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일반적인 집단자아존중감에 대한 중다회귀분

석 결과를 살펴 보면, 전반적으로 개인자아존중감이 집단지위보다 일반적 집단자아존중감을 더 잘 예언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6 참조). 반면에 집단지위는 하위척도 요인에 따라 유의하게 기여를 하는 정도가 매우 달랐다. 집단지위는 전반적으로 일반적 집단자아존중감 정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척도 중에서도 멤버십 집단자아존중감과 공적인 집단자아존중감, 그리고 정체적 집단자아존중감을 예측하는 정도는 유의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개인적 자아존중감과 집단지위의 변인은 일반적 집단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R^2=.275$)의 총점과 그 하위요인인 멤버십 집단자아존중감($R^2=.297$), 사적 집단자아존중감($R^2=.145$), 그리고 공적 집단자아존중감($R^2=.158$), 정체적 집단자아존중감($R^2=.082$) 모두에 대하여 유의한 예측력을 가졌다.

개인적 자아존중감과 집단지위가 대학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을 예언하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앞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적 자아존중감은 대학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을 예측하는데 매우 유의한 변인이었다. 더욱이 집단의 지위도 대학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을 예측하는데 매우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표 7). 또한 앞서 일반적인 집단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적인 집단자아존중감에 대한 집단지위

의 회귀계수가 여러 하위척도들에 대한 회귀계수 중에서 가장 컸으며 역시 집단지위가 낮을수록 대학에 대한 공적인 집단자아존중감을 적게 느꼈다. 개인적 자아존중감과 집단지위가 대학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을 설명해주는 설명량은 총점과 하위척도들에서 모두 유의하였다.

개인적 자아존중감은 성 집단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을 예언하는 데도 상당히 유의한 변인이었다(표 8). 단지 정체적 집단자아존중감 하위척도에서만 상관($r=.104$)이 유의하지 않았다. 집단지위는 멤버십 집단자아존중감의 하위척도와만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r=-.028$). 앞서 상관관계분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성 집단자아존중감의 총점과 정체적 집단자아존중감의 하위척도는 대학의 집단지위와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데 비하여 사적인 집단자아존중감, 그리고 공적인 집단자아존중감과 대학의 집단지위와는 부적인 상관이 유의하여 집단지위가 높은 Y대 학생일수록 성집단에 대하여 공적인 집단자아존중감과 사적인 집단자아존중감을 적게 느꼈다. 전반적으로 개인적 자아존중감과 집단지위는 성집단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설명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소집단의 집단자아존중감에 대한 집단지위와 개인자아존중감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6. 집단지위, 개인자아존중감과 일반적 집단자아존중감과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일반적 집단자아존중감)				
	총점 β	멤버십 β	사적 β	공적 β	정체적 β
개인적 자아존중감	.519***	.535***	.379***	.334***	.255***
집단지위	.052	-.124*	.024	.204***	.119*
R^2	.275***	.297***	.145***	.158***	.082***

* $p<.05$, ** $p<.01$, *** $p<.001$

표 7. 집단지위, 개인자아존중감과 대학 집단자아존중감과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대학 집단자아존중감)				
	총점 β	멤버십 β	사적 β	공적 β	정체적 β
개인적 자아존중감	.425***	.409***	.335***	.308***	.179**
집단지위	.338***	-.076*	.328***	.527***	.316***
R^2	.306***	.171***	.228***	.385***	.136***

* $p<.05$, ** $p<.01$, *** $p<.001$

표 8. 집단지위, 개인자아존중감과 성 집단자아존중감과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성 집단자아존중감)				
	총점 β	멤버십 β	사적 β	공적 β	정체적 β
개인적 자아존중감	.410***	.492***	.301***	.186***	.104
집단지위	.137*	-.028	-.195***	-.245***	.126*
R ²	.183***	.242***	.124***	.091***	.028*

* $p < .05$, ** $p < .01$, *** $p < .001$

표 9. 집단지위, 개인자아존중감과 소집단 집단자아존중감과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소집단 집단자아존중감)				
	총점 β	멤버십 β	사적 β	공적 β	정체적 β
개인적 자아존중감	.432***	.442***	.375***	.346***	.177**
집단지위	-.021	.044	.044	.021	-.055
R ²	.187***	.197***	.143***	.120***	.035**

* $p < .05$, ** $p < .01$, *** $p < .001$

(표 9), 소집단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도 개인적 자아존중감으로 유의하게 예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집단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과 달리 집단지위가 소집단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을 예언하는 데는 중요한 변인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논의

본 연구는 개인자아존중감과 집단지위 변인이 집단자아존중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또 Crocker와 Luhtanen(1990)이 집단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한 집단자아존중 척도가 실제로 개인이 속해있는 여러 집단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상대적으로 지위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두 대학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자아존중감(Rosenberg, 1965)과 일반집단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속해있는 여러 집단-대학, 성, 소규모집단에 대해 각각의 집단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다.

먼저 여러 집단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을 측정할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에 관계없이 일반집단, 대학, 성, 소집단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 점수간에 높은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집단에 대한 일반집단자아존중감 척도가 개인이 속해있는 여러 집단 범주에 대한 자부심을 어느 정도 종합적으로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개인자아존중감 역시 일반집단자아존중감과 구체적인 집단들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인자아존중감과 집단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는 지위가 다르다고 가정된 두 대학의 학생들에게서 일관된 형태로 나타났는데 개인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은 학생들일수록 자신이 속해 있는 여러 집단에 대한 집단자아존중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지위에 의한 효과는 전체 일반집단자아존중감에는 크게 반영되지 않아, 일반집단자아존중감의 총점은 대학지위 변인과 유의한 상관관이 없었다. 그러나 일반집단자아존중감의 하위척도 중에 공적집단자아존중 척도와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의 지위가 높을수록 그 집단에 속해있는 구성원들이 더 만족하고 자부심을 갖는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Ellemers, van Knippenberg, de Vries, & Wilke, 1988).

반면에 대학의 지위는 대학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

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위가 높다고 가정된 Y대학의 학생들이 더 자신의 대학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대학의 지위에 의한 차이가 구체적인 집단인 대학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에서는 나타난 반면 일반적인 집단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G대학 학생들이 자신의 개인자아존중감을 유지하기 위해 대학이 갖는 중요성이나 의미를 축소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는 설문에서 일반적인 집단자아존중 척도에 응답한 후 어떤 집단 범주를 염두에 두고 응답했는지, 염두에 두었다면 어떤 집단이었는지를 물어 보았을 때, G대학 학생들의 경우 대학이 아닌 학과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수가 Y대학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집단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에서의 차이가 전반적인 일반적인 집단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총점)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개인이 개인자아존중감을 형성, 유지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반적인 집단자아존중감을 형성, 유지한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즉 개인이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과 성공, 실패의 여러 구체적인 과거 경험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통합된 인식과 자아 존중감을 갖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해 있는 여러 집단의 특성은 다를 수 있고 또 각각에 대한 자부심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자아존중감과 일관되게 자신이 속해있는 여러 집단범주들에 대해 하나의 통합된 느낌과 자부심을 갖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집단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을 통합하는데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개인자아존중감이며 그것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가정은 본 연구에서 개인자아존중감이 모든 집단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어 지위가 다른 두 대학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개인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여러 구체적 집단에 대하여 높은 집단자아존중감을 나타내는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집단지위의 효과는 일반 집단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 가운데 공적 집단자아존중감과 정체적 집단자아존중감과는 정적인 방향으로, 멤버십 집단자아존중감과는 부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에서는 사적 집단자아존중감을 포함한 모든 하위척도에서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이 대학생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 집단이므로 일반 집단자아존중감 척도의 총점에는 대학의 지위차이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으나 하위척도에는 그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즉, 일반적으로 두 대학의 학생들은 자신이 속하는 대학의 지위가 높은지 혹은 낮은지 잘 지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구체적으로 공적 집단자아존중 하위척도에서의 차이로 나타났고 그 결과 대학이라는 범주가 각 대학에 속하는 학생들의 정체감에 의미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정체적 집단자아존중감 하위척도에서도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다고 가정된 G대학의 학생들이 대학이 자신의 정체감에 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집단지위변인이 소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 대한 집단자아존중 하위척도 가운데 멤버십 하위척도와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집단에 대해 만족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것과 집단을 위해 자신이 노력하고 집단성원 중에 자신이 가치로운 존재라고 느끼는 것과는 그다지 상관이 없고 오히려 자기가 속한 집단의 지위가 높을수록 자신이 집단에 중요한 성원이라고 느끼는 정도는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자기가 속해있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받아들이고 집단을 위해 자신이 애써 노력하려 하지 않는 경향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성 집단자아존중감에서 두 대학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예상치 못한 결과인데, G대학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더 자신의 성에 대해 만족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아마도 개인적인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는 Y대학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성을 주요한 사회 범주로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한 전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자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이전의 연구(김혜숙, 1994) 결과와 동일하다. 특히 공적 집단자아존중 하위척도에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사회에서 여성들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 여성들의 의식에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Y대 여학생들이 G대 여학생들보다 공적 집단자아존중감이 낮은 결과는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에 따라 대우를 받고자하는 기대수준이 Y대 여학생들이 더 높아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에서의 여성차별을 더 민감하게 느끼게 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조사한 표본의 대학별 성 비율이 동일하지 않아 이러한 결과를 확인할 수는 없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소규모집단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에는 개인자아존중감만 강한 영향을 미치고 집단지위변인은 아무런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 경우의 집단은 자신이 취미나 관심사에 의해 직접 선택한 집단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집단지위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이 타당한 결과라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개인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집단의 지위와 관계없이 자신이 속해있는 여러 집단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이 높다. 둘째, 집단 지위의 차이가 존재할 때 이러한 변인의 효과는 공적 집단자아존중감에서 가장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며 일반적인 집단이 아닌 구체적 집단인 대학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에 가장 잘 반영되고 있다. 셋째, 일반적 집단자아존중 척도는 개인이 속해있는 여러 집단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을 어느정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가 앞으로의 집단문제를 연구할 때 갖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는 특정 집단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어느 수준의 집단자아존중감을 측정할 것인가를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선정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일반적인 집단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이 여러 범주에 대한 종합적인 집단자아존중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연구상황이 구체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일 경우 일반적인 집

단자아존중 척도보다는 연구대상인 특정 집단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측정치일 수 있다. 따라서 연구목적이 특정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현상을 측정할 것인가 혹은 일반적인 집단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현상을 측정할 것인가에 따라 측정할 집단자아존중감을 달리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집단자아존중감의 총점을 주요변인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하위요인들의 점수를 주요 관심사로 선정해야 할 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두 대학의 학생들이 서로 비교의 대상이 되는지 알지 못한 채 설문에 응답하였다. 그러나 만일 서로 상대집단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 응답하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또 만일 비교집단을 여러 개 정해주고 응답하게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설문에 응답을 한 학생들이 구체적인 비교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응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위차이 변인의 효과가 발생하였다. 만일 비교집단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해준 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여러 가지 상관관계들을 조사한다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구체적인 비교 집단이 있는 경우 집단자아존중감은 더 강하게 나타나거나 혹은 더 약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 성집단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이 있어 나타난 남녀의 차이와 학교의 지위차이에 따른 차이가 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도 후속연구를 통해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혜숙(1994). 한국 집단자아존중 척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8, 103-116.
- Baumgardner, A. H.(1990). To know oneself is to like oneself: Self-certainty and self-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1062-72.
- Campbell, J. D. (1990). Self-esteem and the clarity of the self 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538-49.

- Corcker, J., & Luhtanen, R. (1990). Collective self-esteem and ingroup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55-66.
- Crocker, J., & Luhtanen, R. (1990). Self-esteem and intergroup comparisons: Toward a theory of collective self-esteem. In J. Suls and T. A. Wills (Eds.). *Social Comparison: Contemporary theory and research*.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Ellemers, N., van Knippenberg, A., de Vries, N., & Wilke, H. (1988). Social identification and permeability of group boundari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8, 497-513.
- Luhtanen, R., & Crocker, J. (1990). A collective self-esteem scale: Self evaluation of one's social identity. Unpublished paper.
- Marsh, H. W. (1986). Global self esteem: Its relation to specific facets of self concept and their import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224-36.
- Pelham, B. W. & Swann, W. B. Jr (1989). From self-conceptions to self-worth: On the sources and structure of global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672-80.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ajfel, H. (1982).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3, 1-39.

Effects of Personal Self-esteem and Group Status on Collective Self-esteem

Ji-Kyung Kim, Su-Ae Park and Hoon-Koo Lee

Yonsei University

In this study,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sonal self-esteem and status of social group and collective self-esteem were examined. In addition whether general collective self-esteem represent specific collective self-esteem about various groups was tested. Personal self-esteem and collective self-esteem were measured. The data was gathered from two universities which were regarded as having different social status. Various collective self-esteem of different kinds of social groups(eg, general group, university, sex, small group which survey participants attended) were surveyed.

The collective self-esteems about concrete groups(university, sex, and small group) were correlated moderately with general collective self-esteem.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personal self-esteem is a significant indicator of all collective self-esteems regardless of the group status. Group status is a main factor that influences collective self-esteem about university. The unexpected result was the effect of group status on collective self-esteems on sex group, especially on the private collective self-esteem and identical collective self-esteem sub-scale.

In conclusion, individuals who have high personal self-esteem have high collective self-esteem than there of individuals who has low personal self-esteem. And the higher the status of group which individual belong to, collective self-esteem about the group was higher. But the difference of group status was inflexible, it was considered that high personal self-esteem individuals who belongs to low status group accept the status of groups.